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동혁(연세대)

1. 들어가며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친숙한 이야기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신나게 듣는다. 그러나 어릴 적 신나던 이야기는 어른이 되면서 불편해진다. 정복 전쟁, 인종 청소 같은 어구를 상기시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감정의 중심에 ‘바침’, ‘전멸’, ‘진멸’ 등으로 번역되는 ‘헤렘’(חֶרֶם)이 자리한다. 히브리어 ‘헤렘’은 간략히 말하면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¹ 전투에 참

1 ‘헤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서 M. Greenberg, “Herem”, Fred Skolni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aedia Judaica* (22 vols.; 2nd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9:10-13; N. Lohfink, G. J. Botterweck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J. T. Willis et al. (trans.), (16 vo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2018), 5:180-199를 보라. 고대 근동의 배경까지 포함한 자료로서 Philip D. Stern, *The Biblical Herem: A Window o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Atlanta:

여한 적의 군인은 물론, 여자, 아이, 노인,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 여리고성의 헤렘은 여호수아 6장에서 만날 수 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수 6:16-19).²

이 말을 듣고서 백성은

성 안에 있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수 6:2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한다. 사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 헤렘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리고성 전투 직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Scholars Press, 1991)를 보라. 헤렘의 수용사로 Christian Hofreiter, *Making Sense of Old Testament Genocide: Christian Interpretations of Herem Passages* (OTR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를 참고하라. 신약학자 박형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 헤렘 개념을 탐구하는 연구를 영어로 출간한 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Hyung Dae Park, 「헤렘을 찾아서? 헤렘의 빛으로 본 누가행전 연구」(박형대 옮김), (서울: 그리스심, 2011). 이 책의 2장(49-130쪽)은 구약의 헤렘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2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성경 본문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새번역에서 가져온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옛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일곱 명을, 숫양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수 6:2-5).

위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만 이야기해 주셨다. 헤렘을 실행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얼마 전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기 때문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신 20:16-18).

이 본문은 여리고성 헤렘의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³ 따라서 여리고 전투의 헤렘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여리고 주민을 전멸시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

3 또한 신 7:1-4을 보라.

호수아가 혼자 생각해서 내린 명령이 아닌 것이다.⁴

여호수아기와 여리고 전투의 역사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과연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죽였는지에 대해 적잖은 학자들이 의심하는 것이 현실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헤렘 이야기가 기독교의 경전 속에서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다는 사실 자체가 성서를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는 난제가 된다. 그러므로 성전을 경전으로 여기는 이들 앞에 놓인 질문은 명확하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에 들어 있는 여리고의 헤렘 이야기를 신앙인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헤렘의 (과거)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윤리적 함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본래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헤렘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질문함과 동시에 오늘날 나/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헤렘이 (나/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간 시도되어 온 헤렘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개관한다. 이때 각 시도의 역사적 측면과 윤리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

4 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서원했다는 관점을 자세히 다룬 연구로서 방기민, “회복의 임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 (2021년 3월), 61-96(특히 67-76)을 보라.

5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다수는 1952년에서 1958년에 여리고를 발굴한 Kathleen M. Kenyon의 주장을 따른다. Kenyon에 따르면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다. 즉, 성경이 보여주는 전투와 정복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Kathleen, M. Kenyon, *Excavations at Jericho* [5 vols.;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Jerusalem, 1960-1983]; 또한 Kathleen, M. Kenyon, *Archaeology in the Holy Land* [4th ed.; London: E. Benn, 1979]). Kenyon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서, Eric H. Cline, *Biblical Archae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0-42를 참고하라.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역사성에 관한 최근의 고고학적 논의로서, William G. Dever,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2017), 184-189를 보라.

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신앙 공동체가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하나는 헤렘을 이해하고자 하는 성서학자들의 제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헤렘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헤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이스라엘의 원시성

몇몇 학자는 헤렘을 이스라엘의 원시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려 한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았기에, 다른 민족들이 그랬듯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잔인하게 적을 모두 죽였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로는 홉스(T. R. Hobbs)가 대표적이다. 나이디치(Susan Niditch)는 홉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윤리 문제들-예컨대, 찢먹이 아기들을 진멸(헤렘에 근거하여 죽이는 것이 어째서 허락되는가?)을 다룰 때에 그홉스는 다음과 같은 제안에 기댄다. 곧, 이 원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같지 아니하고, 그들의 윤리는 우리 것과 같지 아니하다. ... 심지어 그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젯거리가 아니었고 삶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라고 제안하기까지 한다.⁶

홉스의 입장에서 핵심은 둘이다. 첫째, 홉스는 과거의 현실을 현대의 윤리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사고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오늘날의 이해는 구약 안에서 전혀 울림이 없었다는 것이다.⁷ 과거의 이스라엘이 싸우고 죽인 것을 오늘의 박애주의와 비교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문화권에서 전쟁의 잔인함은 삶의 당연한 측면이었다고 말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별나게 잔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데이비스(Eryl W. Davi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자행했다고 전해지는 것 같은 종족 학살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당연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모압의 예를 제외하면,⁹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서 승자가 패자에게 성경의 헤렘 같은 일을 자행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비스는, 역사적 논의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다고 전해지는 행위 같은 잔인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함을 지적한다. 과거든 현재든 어떤 집단 전체를 말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요컨대, 홉스가 제시하는 것 같은 이해를 오늘의

6 Susan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8-9. T. R. Hobbs, *A Time for War: A Study of Warfare in the Old Testament* (OTS 3; Wilmington, DE: M. Glazier, 1989), 17, 211을 Niditch가 정리한 것이다.

7 T. R. Hobbs, 앞글, 17.

8 보다 자세한 논의로서 Eryl W. Davies, *The Immoral Bible: Approaches to Old Testament Ethics* (London: T&T Clark, 2010), 58-59를 보라.

9 모압의 왕 메샤(Mesha)가 남긴 ‘메샤 석비’(Mesha Inscription, 또는 ‘모압의 돌’ [The Moabite Stone])에서 여리고 전투에서의 같은 헤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 후 그모스가 내(메샤 왕)에게 말했다. ‘가서 느보(Nebo)를 빼앗아라!’ 따라서 나는 밤에 이동해 새벽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느보를 공격하여, 그것을 점령하고 모두 7천명의 남자와 어린 소년, 여자와 어린 소녀, 여종들까지 죽였다. 나는 그들을 아스타르그모스(Athtar-Kemosh)를 위해 진멸하였대 ‘헤렘’ 시켰대.” James B. Pritchard,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김구원 외 옮김), (서울: CLC, 2016), 559.

10 Eryl W. Davies, 앞글, 60.

신앙인이 받아들이는 어렵다.

이러한 이해와 똑같은 양지만 연결되는 관점이 있는데, 헤렘을 ‘이스라엘적’인 것 혹은 ‘유대(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헤렘이 구약의 폭력성과 원시성을 대표하며, 신약이 보여 주는 은혜의 복음과 대조된다는 것이다.¹¹ 이로써 헤렘 문제는 구약적인 것으로 한정되고, 예수의 제자들이자 신약을 규범으로 삼는 기독교인들은 헤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편의주의적이다. 기독교회는 옛 언약(舊約)을 계승한 새 언약(新約) 위에 세워졌다.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폐기주의(supersessionism)는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기독교회를 위협해 왔지만 기독교회는 그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쳤다.¹² 구약도 기독교회의 정경의 한 부분이므로, 구약 속 한 주제를 손쉽게 물리칠 수는 없다. 구약도 신약 못지않게, 적어도 신약에 버금가게, 기독교회의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계시해 준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폐기주의는 신학적 답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와 학살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성서적 근거로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자손은 사 대제가 되어서야 이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창 15:16).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 때에는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11 Susan Niditch, 윗글, 5.

12 대표적인 예는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한 2세기의 마르키온(Marcion)의 주장이다. 마르키온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Ian A. McFarland, “Marcion”, Ian A. McFarland et al.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96을 보라.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들의 죄가 임계선을 넘을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벌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몇몇 학자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 아니라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몰렉 제의도 포함했다.¹³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가나안 사회의 사악함은 레위기 18:24-25; 20:22-24; 신명기 9:5; 12:29-31에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에서 좀더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사악함에는 특히 풍요 제의와 연결되어 있는 성적 방탕과 왜곡 및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비정함이 포함되어 있다. 가나안 족속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레위기가 극적일 정도로 생생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심장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땅 자체가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겹고 메스꺼워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소화시키실’ 수 없다는 말이다.¹⁴

우상 숭배와 방종과 비정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레위기 18장에 따르면 이로써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하여금 거주민들을 토해 내게 하실 것이다(레 18:24-28).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땅이 다시 깨끗해질 것임을 레위기 본문은 암시한다.¹⁵ 그렇다면 헤렘이 끔찍해 보이더라도 실은 보다 큰 선이 되는 것이다. 악을 몰아내고 땅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죽이는 일은 살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

13 레 18:21을 보라. 몰렉에 관해서는 George C. Heider, “Molech (Deity)”, David Noel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4:895-898을 보라.

14 Christopher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김재영 옮김), (서울: IVP, 2015), 668.

15 땅이 거주민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 거주민을 토해 낸다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이해와 관련하여 Brent A. Strawn, “On Vomiting: Leviticus, Jonah, Ea(a)rth”, *CBQ* 74 (2012), 447-452를 보라.

의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¹⁶

헤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폭넓은 영향력을 자랑한다. 헤렘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나이드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헤렘이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금령헤렘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응분의 복과 저주라는 신명기의 윤리와 관련한 이스라엘 금령의 전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적들을 전멸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에서의 살인이 합리화될 수 있고, 죄의식이 누그러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여겨져야 하고, 대적은 인간보다 못한 절멸되어야 하는 괴물이다.¹⁷

나이드치의 설명이 암시하듯, 헤렘을 하나님의 공의 혹은 심판으로 이해하게 되면 헤렘을 윤리적으로 납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헤렘’ 시킨 것이 인과응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헤렘 이해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이해를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주위를 맴돈다. 첫째, 가나안 사람들이 받은 형벌의 무게가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상응했는가? 지도층이나 권력자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 백성이나 아이들, 심지어 아기들까지 그런 식으로 ‘처형’ 당했어야 했는가?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집행

16 레 20:16-18; 신 7:25-26을 보라. 또한 Hyung Dae Park, *읽글*, 62-68을 보라.

17 Susan Niditch, *읽글*, 152.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펼친 사상가로,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Henry Beveridge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49), 79를 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들은 재판관 혹은 사형 집행관이 될 만큼 깨끗했는가? 두 질문 중 한 질문에만 '아니요'로 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헤렘 이해를 윤리적으로 긍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3) 순종의 모범, 가장 귀한 제물

헤렘을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범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따를 뿐이다.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상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이었다(수 6:2-5). 그런데 이 이상한 명령에 순종했을 때 승리라는 선물이 따라오지 않았는가.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성 주위를 돌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승리라는 선물을 받았듯, 이번에도 아무리 잔인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성 주민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칼뱅은 헤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비인간적 학살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분-그분의 손안에 삶과 죽음이 있다. 이 공정하게 그 민족들에게 파멸을 결정하셨으므로, 이는 모든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다.”¹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호크(L. Daniel Hawk)가 지적한바 학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세심한 순종의 행위이고 언약적 충성에 관한 이스라엘의 의식을 고양해 준다.”¹⁹ 이같이 여리고의 헤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²⁰

18 John Calvin, *룻글*, 79.

19 L. Daniel Hawk, *Joshua*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99.

20 Trent C. Butler, *Joshua* (WBC 7; Waco, TX: Word, 1983), 71.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헤렘은 순종이자 희생일 수 있었다. 과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달콤한 이유 중 하나는 전리품이었고, 각종 전리품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예와 포로, 즉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헤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던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즉, 헤렘 실천은 최상품 전리품을 자기들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순종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남일은 성서가 “윤리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게 될 반(反)야웨적인 문화와 문명을 제거함으로써 그 언약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야웨의 사랑의 반응”이라고 결론 내린다. “즉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함으로써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²¹

이러한 이해는 역사적 이해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 납득까지 아우를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더라도 말이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갖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에 그 방법이 그리도 폭력적이었어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타인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순종을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21 김남일, “헤렘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4집 (2007), 179.

4) 역사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헤렘의 역사성에 집중함으로써 신학적, 윤리적 논의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실제로 여리고 전투 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성서 밖 문헌 자료나 고고학 자료는 없고, 적지 않은 학자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여리고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한다.²² 만약 여리고의 헤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종 청소'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았다는 뜻인데, 왜 굳이 이 일을 갖고 씨름해야 하는가?

그러나 성서 독자는 여전히 헤렘과 씨름해야 한다. 첫째, 헤렘은 여리고 전투 이야기 말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나온다. 신명기 7장 1-4절과 13장 15-17절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 헤렘을 실천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나오고, 여리고 전투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8장의 아이 성읍과의 전쟁과 사무엘상 15장의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헤렘을 실천해야 했다. 에스더기 8-9장(특히, 8:11; 9:10, 15, 16)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하만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 일은 비록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헤렘을 실천한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헤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콜린스(John J. Collins)가 지적하듯, 진짜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신앙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자 신적 권위로써 용납된 일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²³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규범적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예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헤렘을

22 Eric H. Cline, *윗글*, 77.

23 John J. Collins, *What Are Biblical Values? What the Bible Says on Key Ethical Issu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149.

명령하고 실천하게 한 신명기 및 여호수아기의 신학과 당연히 씨름해야 한다. 성경 안에서 헤렘은 여전히 두드러진다.²⁴

역사적 의미와 윤리적 함의라는 우리의 범주로 되돌아간다면, 역사성을 부정함으로써 헤렘이라는 문제를 해결 혹은 회피하려는 시도는 윤리적 측면을 외면한다. 성서 독자는 헤렘의 윤리적 문제를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헤렘을 이스라엘의 원시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헤렘의 잔인성이 당대의 상황과 문화에서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오늘의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렘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과거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를 무작정 관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둘째, 헤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해석은 두 가지 질문으로 반박할 수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받은 형벌이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상응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 집행관의 자격이 있었는가? 셋째, 헤렘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범이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헤렘이라는 폭력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순종을 시험할 수는 없었는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넷째, 헤렘의 역사성을 부정함으로써 난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여리고의 헤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여전히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적절

24 Eryl W. Davies, *윗글*, 20.

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지시하는 본문들과 이스라엘이 헤렘을 실천하는 본문들은 소위 난해 본문이다. 이런 성서 본문은 성서 독자를 곤란하게 만든다. 보스턴대학교의 구약학자 다르(Katheryn Pfisterer Darr)는 1992년 “에스겔의 하나님 정당화”(Ezekiel's Justification of God)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부제가 흥미롭다. “곤란한 본문들 가르치기”(Teaching Troubling Texts)가 그것이다.²⁵ 이 논문은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난해 본문인 16장, 20장, 23장을 논의하면서 성서 속의 난해 본문을 과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 다르의 논의는 또 다른 난해 본문인 헤렘 본문들과 씨름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1) 난해 본문을 다루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

다르는 난해 본문을 다루는 방법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난해 본문을 다루는 적절하지 못한 읽기 방법을 일러 준다.²⁶ 다르가 비판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기독교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대체의 신화’(displacement myth)에 근거한 읽기 방법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사명이 끝장났으며 이제 ‘옛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이해이다.²⁷ 본 논문에서는 ‘폐기주의’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둘째, 다르는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도 잘못된 접근법임을 지적한다. 이것은 역사의 단계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해 오셨다는 주장이다.²⁸ 이러한 하나님 이

25 Katheryn Pfisterer Darr, “Ezekiel's Justifications of God: Teaching Troubling Texts”, *JSOT* 55 (1992), 97-117.

26 윗글, 109-110.

27 윗글, 109.

28 윗글, 110.

해는 기독교 신학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셋째, ‘성경 속 성경’(canon within the canon) 접근법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²⁹

2) 난해 본문 가르치기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르가 제안하는 난해 본문을 가르치는 방법을 두 단계로 논의하고자 한다.³⁰ 다르가 일러 주는 첫 번째 단계는 내러티브를 질문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성서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 읽지만 말고, 그것과 대화하면서 이것저것 따져 보라는 것이다. 다르가 에스겔서의 어려운 본문들에 던진 질문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주제인 헤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왜 여호수아기 저자는, 혹은 신명기 저자는, 혹은 성경의 다른 책들의 저자는, 헤렘 본문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가? 이 저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이끈 쟁점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헤렘에만 집중하던 우리의 시각을 다양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헤렘과 그 주변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헤렘의 다양한 측면뿐 아니라 헤렘을 표현하고 선언하도록 한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내러티브를 질문으로 바꿀 때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역사적 맥락이다.³²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당시에는 중요했을 수 있다. 이를 생각함으로써 덜 중요한 문제를 옆으로 치우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이해하기 힘들던 것

29 윗글, 110. ‘성경 속 성경’ 접근법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으로, Eryl W. Davies, 윗글, 71-76을 보라.

30 우리가 다룰 두 단계에 더하여 Darr의 논의는 세 번째 단계도 포함한다. Darr의 세 번째 단계는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선생이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Kathryn Pfisterer Darr, 윗글, 113-116을 참고하라.

31 Darr가 에스겔 16장, 20장, 23장에 던진 질문들은 윗글, 111에서 볼 수 있다.

32 실제로 Darr가 에스겔 16장, 20장, 23장에 던진 질문들은 에스겔 예언자의 역사적 맥락에 집중한다. 윗글, 111.

을 이해할 수도 있다.

다르가 제안하는 두 번째 단계는 본문들로 하여금 서로 대화하게 하라는 것이다. 다르는 자신의 방법론에 영향을 준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말을 인용한다. “그 어느 것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 … [교실에서 만나는 모든 항목은 대화 상대를 가져야만 하고, 그로써 각각은 논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 하여 학생들은 차이를 다루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³³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살아간 다양한 저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므로 헤렘에 대한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헤렘과 대화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헤렘 본문만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다면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러티브에 질문을 던지고 헤렘 기사의 대화 상대를 찾음으로써 헤렘이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성서 속에서 헤렘 전승은 외면하기 힘들 만큼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시선을 거두고자 해도 다시 잡아끄는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영감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한, 헤렘 전승을 외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헤렘만 볼 필요는 없다. 다음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여리고 전투의 헤렘이 헤렘 일반을 대표하지 않는다. 둘째, 헤렘이 여리고 전투 기사의 전부도 아니다. 셋째, 헤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성서가 계시해 주는 하나님 모습의 전부도 아니다.

첫째, 헤렘이 늘 여리고 전투의 헤렘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것만 뜻한 것은 아니다. 「유대교 백과사전」(*Encyclopaedia Judaica*)에서 ‘헤렘’을

33 Jonathan Z. Smith, “Narratives into Problems’: The College Introductory Course and the Study of Religion”, *JAAR* 56 (1988), 735. Kathryn Pfisterer Darr, 윗글, 112-113에서 재인용.

설명하는 글을 쓴 그린버그(M. Greenberg)는 헤렘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 준다.³⁴ 예컨대, 오경의 법은 다음의 사람들/물건들을 헤렘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1)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출 22:20; 신 7:25-26; 13:12-18), (2) 약 속의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일곱 민족(신 7:1-2), (3) 자기 소유물 중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친 것(레 27:28).³⁵ 이 세 의미 중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관계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

더욱이, 여리고 전투의 헤렘은 헤렘으로서는 특별한 편에 속한다. 그린버그가 말해 주듯, 여리고의 헤렘은 “예외적으로 가혹했다.”³⁶ 신명기가 명령하는 헤렘은 여리고 전투에서 묘사된 헤렘과 그 양상이 꽤 다르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헤렘의 동기와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노획물은 일반적으로 헤렘에 처해지지 않은 것 같다(신 6:11).³⁷ 즉, 신명기 6장 11절에서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이 전제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마을과 성읍의 농지와 시설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여리고 전투의 헤렘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죽였고, 도시를 불태웠고, 노획물도 포기했다. 요컨대 여리고 전투의 헤렘이 가혹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든 헤렘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34 M. Greenberg, *윗글*, 9:10-13.

35 *윗글*, 9:10.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이 헤렘에 처한 경우이다. 아간과 아이성 전투를 새로운 시각으로 살핀 연구로서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한 때문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4호 (2012년 12월), 72-95를 보라.

36 M. Greenberg, *윗글*, 9:10.

37 *윗글*, 9:10.

둘째, 헤렘이 여리고 전투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여리고 전투 이야기에
는 구원받은 여리고 주민이 등장한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다. 적어도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진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셨다.
강규성은 여호수아 5-11장의 헤렘 전쟁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
께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특히 라합 이야기와 기브온 주민
이야기를 통해 강조된다는 것이다.³⁸

셋째, 헤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성서, 심지어 구약의 일부일 뿐이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끝
까지 용서하시는 호세아의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친히 넣어 주시는 에스겔의 하나님이 계
시다. 콜린스가 말하듯,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폭력은 신명기 속 노예와 이
주민을 향한 관심과 나란히 두고 볼 수 있다. 혹은 고난받는 종의 모델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모범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³⁹ 따라서 우리는 다 이
해되지 않더라도 전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성서 속 다양한 목소리, 곧 제창
이 아닌 다성적 합창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합창이 때로 불협화음이 나
더라도 그래야 한다.

38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권 (2019), 1-25, 특히 22. 신약의 마태복음에 따르면 라합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데(마 1:5),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 하면 넷뿐이다(다말, 라합, 룻, 밧세바). 라합은 신약에서 두 번 더 언급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행함으로 옳다 인정받은 예로서 언급된다. 초기 기독교에서 라합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소개하는 글로서 Jacob L. Wright, *War, Memor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Hebrew Bib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doi: 10.1017/9781108691512), 111-128을 보라.

39 John J. Collins, 앞글, 169.

4. 나가며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여리고의 헤렘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이해를 정리하였다. 이스라엘의 원시성으로서의 헤렘 이해는 헤렘의 역사적인 측면만을 살피고 윤리적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헤렘 이해와 순종의 모범으로서의 헤렘 이해는 역사적 이해와 더불어 윤리적 함의까지 다루고자 하지만, 현대인의 윤리적 감수성을 납득시킬 만한 해석이 되기는 힘들다. 여리고 전투의 역사성에 집중함으로써 헤렘 논의를 피하는 것은 일견 유용한 듯하나 여리고의 헤렘이 기독교인의 경전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

여리고의 헤렘 이야기 같은 난해 본문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 구약학자 다르의 제안은 유용하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질문으로 바꾸고 성서의 본문들로 하여금 서로 대화하도록 함으로써 헤렘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헤렘 내러티브에 질문을 던지고 헤렘 기사의 대화 상대를 찾음으로써 헤렘이 성경이 보여 주는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실로 여리고 전투의 헤렘은 헤렘 일반을 대표하지 않으며, 헤렘이 여리고 전투 기사의 전부도 아니며, 헤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성서가 계시해 주는 하나님 모습의 전부도 아니다. 요컨대 우리가 여리고의 헤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의 다층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성서 속 다양한 증언과 신학과 신앙을 옆에 두고서 읽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헤렘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는 그것과 씨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받은 것 같은 복을 받게 될지 모른다.

참고문헌

-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권 (2019), 1-25.
- 김남일, “헤렘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4집 (2007), 153-181.
-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4호 (2012년 12월), 72-95.
-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 (2021년 3월), 61-96.
- Butler, Trent C.,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7; Waco, TX: Word, 1983).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Henry Beveridge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49).
- Cline, Eric H., *Biblical Archae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Collins, John J., *What Are Biblical Values? What the Bible Says on Key Ethical Issu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 Darr, Katheryn Pfisterer, “Ezekiel’s Justifications of God: Teaching Troubling Text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55 (1992), 97-117.
- Davies, Eryl W., *The Immoral Bible: Approaches to Old Testament Ethics* (London: T&T Clark, 2010).
- Dever, William G.,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2017).
- Greenberg, M., “Herem”, Fred Skolni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aedia Judaica* (22 vols.: 2nd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9:10-13.
- Hawk, L. Daniel, *Joshua*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 Heider, George C., “Molech (Deity)”, David Noel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4:895-898.

- Hobbs, T. R., *A Time for War: A Study of Warfare in the Old Testament* (Old Testament Studies 3; Wilmington, DE: M. Glazier, 1989).
- Hofreiter, Christian, *Making Sense of Old Testament Genocide: Christian Interpretations of Herem Passages*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Kenyon, Kathleen M., *Archaeology in the Holy Land* (4th ed.; London: E. Benn, 1979).
- Kenyon, Kathleen M., *Excavations at Jericho* (5 vols.;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Jerusalem, 1960-1983).
- Lohfink, N., “*Haram; Herem*”, G. J. Botterweck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J. T. Willis et al. (trans.), (16 vo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2018), 5:180-199.
- McFarland, Ian A., “*Marcion*”, Ian A. McFarland et al. (eds.),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96.
- Niditch, Susan,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Park, Hyung Dae, 『헤렘을 찾아서? 헤렘의 빛으로 본 누가행전 연구』 (박학대 옮김), (서울: 그리스심, 2011).
- Pritchard, James B.,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김구원 외 옮김), (서울: CLC, 2016).
- Smith, Jonathan Z., “‘Narratives into Problems’: The College Introductory Course and the Study of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6 (1988), 727-739.
- Stern, Philip D., *The Biblical Herem: A Window o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Atlanta: Scholars Press, 1991).
- Strawn, Brent A., “On Vomiting: Leviticus, Jonah, Ea(a)rt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4 (2012), 445-464.
- Wright, Christopher J. H.,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김재영 옮김), (서울: IVP, 2015).
- Wright, Jacob L., *War, Memor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Hebrew Bib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doi: 10.1017/9781108691512).

검색어

헤렘

여리고 전투

난해 본문

여호수아

가나안 사람들

How to Understand *Hērem*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hērem*, especially the *hērem* of Jericho. The first half of the paper surveys different understandings of *hērem* among biblical scholars. Bible scholars have understood the *hērem* of Jericho (1) as Israel's primitiveness, (2) as God's wrath, and (3) as the model of obedience; they have also tried to evade the issue (4) by doubting the historicity of the relevant biblical material. These attempts may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hērem* historically, but they cannot satisfy the moral sensitivity of the moderns. Accordingly,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exploits Hebrew Bible scholar Kathryn Pfisterer Darr's suggestion about teaching difficult texts. By adopting her suggestion that narratives should be

www.kci.go.kr

turned into problems and different biblical texts should debate with each other, we can establish a foothold for understanding *ḥērem* narratives. By asking questions about *ḥērem* narratives and by making other biblical texts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we realize that *ḥērem* is only one part of a bigger biblical picture. Indeed, the *ḥērem* of Jericho does not represent *ḥērem* in general; *ḥērem* is not what the narrative of the battle of Jericho is all about; and the God who commands *ḥērem* is not the whole picture of the God revealed by the Bible. *Ḥērem* is a burdensome and difficult topic, but wrestling with it can lead the faith community into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Bible.

Keywords

Hērem

The battle of jericho

Difficult texts

Joshua

The canaanites

- 투고일: 2021년 4월 15일
- 심사일: 2021년 7월 1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7월 24일

www.kci.go.kr